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성도의 품격

성경: 빌립보서 2장 12-18절

Tag:

12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3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4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5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16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달음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17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18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2:12-18)

품격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든 그 자체에 가치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하잘 것 없고, 쓸모없는 자가 아닌, 가치가 있고 물건이라면 가격이 높다는 뜻이다.

그러나 품격이란 희귀할수록 가치가 있는 존재와는 의미가 다르다. 그렇다고 물은 온 우주에 차고 넘치지만, 없어서는 아니 될 소중한 신비한 물질이다. 그렇다고 물에 품격이 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대중성이 있어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아니다. 슈퍼스타 중에는 품격이 없는 애들이 많다. 존엄이라는 말과도 그 의미가 다르다.

살인자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있다. 그러나 살인자에게 품격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다.

‘품위’는 신분제도나 사회적 지위를 따지는 단어다. 품위가 있을지언정 품격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엘레강스한 옷이나 가방이나 장식품을 비싼 값에 구매해서 착용하거나 가지고 다닌다. 그러면 품격이 있어 보이는 하지만, 사실은 그냥 있어 보일 뿐이다. (그렇다고 진정 품격이 있는 사람은 ‘샤넬 클래식 플립백 미디엄 금장’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고 보면 곤란하다.)

그렇다면 왜 품격이 있는 것과 아닌것의 진정성 여부를 따지는 것일까? 과연 누구에게 품격이 있다는 말인가?

오직 한가지 기준이 있다. 하나님께서 인정 하셔야 진짜 품격이 있는 존재이다.

만약 성도가 품격이 있는 척이라도 한다면, 그 성도는 그래도 품격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는 성도다. 그 성도는 선한 사람이다.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예절을 지켜서 품격이 있는 척이라도 했으니 다행이다.

물론 그가 진짜 품격이 있는 성도라면 그 성도는 참으로 고귀한 성도다.

성도에게 품격이란 무엇인가?

### 1.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12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충성하면 군인을 떠올린다.

-특히 미국 군인들은 충성의 열매들이다.

-그들은 혹독하게 훈련 받으며, 어느 곳에서든지 목숨을 내 걸고 사명

을 완수한다. 그러나 사명의 완수 보다는 먼저 자신의 목숨과 동료의 목숨을 지키는 일에 모든 노력을 집중한다.

-그토록 완벽한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다.

-그래야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사명을 완수한다.

-미국은 국방에 가장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 시민들도 군인들을 대우할 때는 최고의 존경으로 대우한다.

-미국은 품격을 잃는 행동을 매우 엄격하게 군사재판으로 다스린다.

-12절 말씀은 항상 주님께 복종하라.

-복종이란 자신의 의사에 상관없이 주님이 명령하신 마땅한 경건생활을 지키는 것이다.

-모든 성도는 자신의 신앙고백과 주님 앞에서 약속한 경건생활이 있다.

-바울이 있든 없든. 교역자가 보던 보지 않던.

-항상 자기의 기분과 상관없이 경건생활에 충성하는 것. 복종이란 내가 오늘은 기도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매일 기도하겠다고 결단했다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있으므로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말한다.

-순종이란 기꺼운 것이고, 복종이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다.

-복종이란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종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명령 앞에 복종하는 것이 되므로.

-바울(교역자)이 있으면 더 쉬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진짜 품격이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삼는 성도가 겸손하고 순전한 성도의 품격을 갖춘 자이다.

-인간은 죄인이다. 죄인으로서의 자신의 게으름, 죄성, 핑계, 형편 등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다.

-복종하면서도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 앞에 떨리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순전한 성도의 품격이다.

-차라리 13절 말씀이 복종하는데에는 좋은 방법이다.

13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는 것이 복종에 도움이 된다.

## 2. 세상에서 빛이 되는 것

14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어떤 일이 아니라 모든 일에 원망이나 시비가 없게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나는 최선을 다 한다고 하지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거나, 모든 경우에 최선을 다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기꺼이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성도의 품격이다.

-내가 수고해야 하고, 내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내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면? 누군가가 원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손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5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는 정의로워야 한다. 흠도 없어야 한다. 순전하기까지 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머리를 굴리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든지, 남의 것을 가져가고 싶어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희생을 피하려고 한다든지 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성도의 품격은 아니다.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다.

-하나님 앞에 저주 받아 마땅한 세대다.

-사람 같이 정나미 떨어지는 존재는 세상에 없다. 어느 계층이든지 마찬가지다. 부자나 가난한자나, 배운자나 무식한 자나, 남자나 여자 할 것 없이, 갈라치기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대다.

-그런 거스르는 세대 앞에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자는 성도의 품격을 상실하게 된다.

-세상에는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품격이 있는 자가 많다.

-하물며 성도가 품격이 없다면 그는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한다.

-성도가 빛이 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비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 당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흠 없이 순전하고, 법을 잘 지키고, 친절하고, 공손하고, 솔선수범하면 하나님 앞에서 흠을 잡히지 않는다.

-그러면 그는 품격있는 성도가 된다.

-다시 말해서 성도의 품격이란, 세상 사람들이 판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는 것이다.

### 3.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는 것

16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달음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17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18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2:12-18)

-하나님의 말씀은 훈장과 같다.

-성도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유대인들은 심지어 머리 이마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쪽지를 붙이고 다녔다.(테필린)

-성도에게 유일한 자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성도는 자신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다. 말씀을 자랑하는 자이다.

-성도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곧 품격이 된다.

-세상 사람들은 세속적인 명품으로 자랑 삼지만, 우리는 말씀이 곧 자랑이다.

-말씀으로 등불을 삼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헛될 뿐이다.

-우리의 수고도 헛될 뿐이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그리스도의 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날.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자랑은 무엇일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다.

-바울은 심지어 자신을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 위에 전제로 드리기를 기뻐 하였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품격이다.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는가? 무엇을 자랑스럽게 여기는가?

-신령한 것을 기뻐하고, 헌신을 기뻐하고, 선교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품격이다.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